

文-安 단일화 압박 거세진다

문화계 인사 102명 “정치개혁·단일화가 시대정신” 범야권 원로들 주중 방식 표명...지역시민단체 촉구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두 후보는 22일 후보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장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 후보는 이날 단일화 논의에 운을 띄우기 위해 고심하는 캠프와는 달리 국민 여론을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지역연인인과 간담회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와 관련,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이런저런 방안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흐름을 기다

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당장 논의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등 양측의 단일화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야의 범야권 인사들이 중심으로 두 후보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영화·미술·종교계 등 각계 인사 102명은 이날 “정치개혁과 단일화가 곧 민주주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소설가 황석영·정도상씨와 화가 임옥상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을 바꾸는 일”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두 후보가 내놓는 정치개혁의 출발은 마땅히 단일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일화의 과정이 곧 정치개혁의 과정이 돼야 하고 정치개혁의 과정이 곧 단일화의 과정이 돼야만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들어서는 문을 열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문 후보에게는 “선대위의 뒷전에서 여전히 낡은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민주당의 개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고, 안 후보에게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언급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구체적 청사진과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서명운동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화두는 정권을 바꾸는 일”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모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이들 외에도 소설가 황지우·김연수씨, 정치영·송해성 감독, 영화배우 박중훈·안석환씨, 명진스님, 서일용 목사, 홍창진 신부, 원불교 강해운 교무 등이 참여했다.

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범야권 원로들로 구성된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도 주중 단일화 방향과 방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원탁회의는 두 후보의 단일화 입장이 차가 확인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편드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일화를 통한 ‘윈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양 캠프 인사와도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YMCA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이달말 광주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문안 드림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를 전국 6개 광역시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로호 추적 함정 출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궤적 추적 등의 임무를 맡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02함(3000t급)이 22일 오전 제주항에서 필리핀 동쪽 공해상을 향해 떠났다. 해경 대원들이 출발 전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로호 3차 발사 카운트다운

“26일 맞춰 준비...비오면 연기할 수도”

나로호(KSLV-1)의 세 번째 발사가 예정대로 26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발사준비 상황, 기상예보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26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26일에 맞춰 발사를 준비해, 당일 발사시간대 강우가 확실해지거나 가능성이 커지면 발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26일 제주도와 전남해안 지역 날씨에 차차 흐려져 후반에 약

한 비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정확한 발사 시간은 발사 당일 기상상황, 우주환경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며, 26일 오후 1시 30분께 공개될 예정이다.

나로호는 모든 점검을 끝내고 지난 21일 발사대 이송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나로호에 장착된 나로과학위성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사일까지 지상국과의 교신을 위한 최종 점검을 받고 있다.

나로호는 발사 예정일 이틀 전인 24일 발사체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져 세워지고 25일에는 최종 발사

■ 나로호 발사 예정일 광주·전남 날씨

26(수)	27(목)	28(금)	29(토)
구름많고비 14/20	흐리고비 14/19	구름많음 14/18	구름조금 11/18

리허설을 거친다.

한편 나로호의 궤적 추적 등 임무를 맡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02함(3000t급)은 이날 오전 9시 제주항에서 필리핀 동쪽 공해상을 향해 떠났다.

3002함은 제주도 남쪽 1700km 해상인 필리핀 동쪽 600km 공해상까지 이동, 나로호 발사 후 발사체 추적과 비행상태 정보 원격 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안 ‘어등산’ 거론도 않고...광주시 국감 부실

‘재탕’ 질의에 준비 부족...큰소리만 치다 끝내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자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최근 광주시민들 사이에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이미 검찰수사까지 진행중인 캠프사업 등을 언론보도를 활용해 ‘재탕’, ‘살탕’하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자료로 국감에 임하는 등 준비 자체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일문일답식의 강압적인 ‘청문회 스타일’로 강운태 광주시장을 압박해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22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에 대한 국감자를 갖고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법인명 캠프) 문제와 제2순환도로,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지역 내 최대 논란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테마파크(유원지)와 골프장을 동시 개장토록 했던 약속을 깨고, 광주시가 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돈 되는 사업’인 골프장만 우선 개장토록 해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사업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내 골프장 업체인 어등산 컨트리클럽은 광주시에 등록 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 일부 조선의원들은 잘못된 데이터로 피감기관을 압박했다가 되레 망신만 당하기도 했다.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간투자자로 개발해 현재 남비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지난 93년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당시(1994년) 감 시장께서 관선시장을 하면서 왜 민간투자를 막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감 시장은 “당시에는 정부에서(SOC)에 민자유치를 하지 않을 때였고, 1996년 이후부터 민자유치가 시작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도 예산현황과 관련해 “광주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예산증가율이 1%에 불과할때 7%나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대에 머물렀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감 시장은 “아니다.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국고보조금이 8%대로 올라갔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데이터를 잘못 입수한 것 같다”며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을 지켜본 지역민들도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시민 김모(40·광주시 동구 서석동)씨는 “지역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등에 대한 논쟁을 기대했으나, 전혀 거론되지 않아 이상한 국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성자동차(주)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 중심 총장로 복합쇼핑몰

the Road Hills

더로드힐스

**광주의 중심 총장로 상권에 품격이 다른 멋진 길!
유럽형 스트리트몰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비전 / 다양한 콘텐츠의 아이템을 중요시 합니다.
20~30대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টে으로 까다로운 입점기준을 통한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려 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좋은 아이টে으로 경영을 인정받은 오너분들에게 입점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쇼핑하는 유럽스타일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

- ! **입지특성** | 젊음의 거리 황금길 초입에 위치 - 유동인구광주 최대
- ! **교통환경** | 접근성 우수 - 지하철역 도보 5분거리
중장로 대로변 위치(최대버스노선)
- ! **시 장 성**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상권의 활성화
광주최고의 쇼핑가(충장로·황금길)
- ! **건물특성** | 기존 건축물의 층개념이 아닌 계단이 없어 계속 이어지는 형태의 스트리트형 쇼핑몰

12월말 오픈예정

구려비시드 호텔 부지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113-1

40.3m / 46.7m / 66.0m / 83.4m / 96.9m / 127.5m / 139.7m

임대(분양) 문의

062.232.9106
010.4064.9106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개발 및 교통계획에 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